

5개월 동안 총 20회차 진행된 〈사진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인문학〉을 통해 우리는 매번 다른 사진·여행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며,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이 주는 본질을 알고, 함께 여행하며, 삶을 기록하는 컨셉으로 개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일상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힐링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된 인문학 전체를 돌아보며 우리가 깨닫고, 돌아본 본질의 의미를 〈시간을 지나 일상속 숨은 이야기를 찾다〉결과집에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소영섭, 장창영 강사님과 지역에 인문가치를 일상에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후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024. 10. 효자생활문화센터장 **선 흥 진**

| 여행에서 사진의 문을 열다

지역에 사는 건 축복일까 불행일까? 우리는 자신이 사는 동네와 주변을 돌아보는 데 서툴다. 그 서툰 시선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다. <사진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인문학> 참가자들은 기꺼이 그 서툰 시선을 벗어나기로 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와 주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달라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사귀에 초록 물결이 질어질 무렵 시작은 우리의 여정은 찬바람이 불면서 마무리되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시선도 그 동안 많이 달라졌다. 무심히 지나쳤던 가까운 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평범했던 일상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했다.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내 삶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교류 속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강의 공간만이 아니라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한결 더 풍요로워졌다. 비록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데 부족하지 않았다. 매일 주어진 것들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고, 스스로 한계를 두었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매일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도 <길 위의 인문학>이 내게 준 선물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느꼈던 세계를 세상에 선보인다. 어떤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절한 이에게는 더 소중한 법이다. 우리는 사진과 인문학을 만나면서 더 넓은 세계로 흘러가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내가 품고 살아온 세계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2024년 가을 장 창 영

산 위에는 정상이지만
고수들의 세상에는 정상이 없다.
다만 자기를 이기는 매서운 수련이 있을 뿐,



향적봉, 무림 고수를 품다_김봉승

오늘은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노고단에서 만난 산오이풀도
함께 축하해 주었다



노고단과 산오이풀_김봉승

의자에 앉아 읊조립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해~라고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외로운 날도, 그리운 날도
새벽바람이 싱그러운 날도
꽃들이 피는 낮에도
달이 뜨는 밤에도
지쳐 쉬고 싶은 날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동경하던 꽃씨 한 톨
외딴곳에 떨어져
지난한 시간을 견디다
만개하던 날, 창공을 품다.



피어오르다_김정희

석양이 내려앉아
쉬어가라는 듯
긴 그림자를 엮는다.



해질녘_김정희

틈새는 좁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또 다른 밝음의 신비함이 느껴지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빛이 내게 말했다_김형규

줄기를 타고 산은 흘러갑니다.
나는 산허리를 만져 보려 애를 쓰지만
되려 그리움만 짊어집니다.



山 허리를 만지다_김형규

바쁘게 달려온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 자전거,
동그랗게 동그랗게 서로가 정겹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나도 거기 닳을 내린다



자전거, 달림을 멈추다_문경희

아이들의 웃음이 나무열매처럼 매달린 놀이터
잠시후면 뽕뽕 터지겠다



도심의 정글숲_문경희

잔잔한 물결에 비친 아파트 반영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 현대 도시의 풍경.



물 위에 그려진 도시의 초상_백영웅

삼천천변 모래톱 가장자리에서 노니는 오리와 물결무늬가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고요한 리듬을 담아냅니다.



모래톱 위의 고요한 교향곡_백영웅

너는 허공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를 쓰고 있다



하늘의 붓_서재업

운해 저 너머엔 마이산도 즐고 있다.



오르기 전에는 몰랐네
계단이 그대에게 가는 내 마음을 닮았다는 걸



천국으로 가는 길_신윤희

붉은 노을이 세상을 삼킨다.
한낮 더위도 잠시 숨을 죽인다.



지금은 잠시 숨을 멈출 때_양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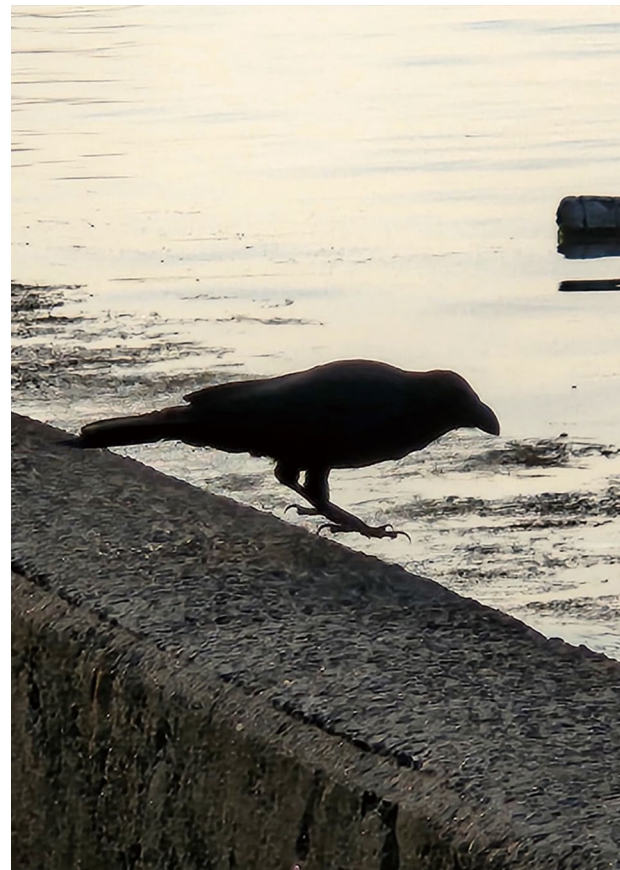
질은 운무는 빛을 품어
안식의 풍경을 그리고
세차게 두드리는 빗줄기는 물무늬로 세상과 얘기한다.

아름다움은 내가 지어낸다.



감춰진 아름다움_우혜자

새벽 일찍 먹이를 찾아 바삐 움직이는
새를 보며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_유인자

어릴 적 엄마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들이
지금도 재래시장을 찾는 추억이 되었다.
어느새 엄마의 나이를 훌쩍 지나 새벽시장으로 향한다.
새벽시장은 추억의 향기.



노란 캔버스 틈이 벌어져 기워볼까 생각을 한다.
잠시 후 바람이 불자 그 자리가 금방 메워져 버렸다.



가을 들판을 김다_이수월

갈대가 피기 시작하면
칠게가 사각대는 순천만의 가을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순천만의 숨결_이수월

미완의 아파트를 바라보며 길을 걷는다.
그 속에 피어날 삶의 이야기를 상상한다.



젖빛 하늘 아래의 희망_정애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
경이로운 미지의 세계로
날개를 활짝 펴고 멋진 꿈을 펼쳐보는거야.



하늘계단_정희숙

한 때는 논이었던 공간이 세월 따라 아파트 촌으로 변했다.
그래도 여전히 남은 연꽃은
자연의 위대함을 묵묵히 말해준다.



아파트, 연꽃에서 피다_조옥희

실개천을 따라가다보면 어린 시절이 나온다.
그 시절로 가는 길을 따라 걷고 싶다.



너에게 가는 길_조윝희

길 옆에는 잠시 쉬어가라는 의자. 누군가의 배려다.
오라는 사람들 흔적은 없고 그 대신 꽃과 풀이 매섭게 다투는 중이다.



요즈음 주택가 골목은 쓸쓸하다.
우연히 반쯤 열어 둔 나무 대문을 만났다.
내 마음은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성큼 들어선다.
주인장의 해맑은 웃음이 눈부시다.



대문 너머_최도규

가끔은 똑바로 보지않아도 좋다
세상은 항상 그만큼 여백을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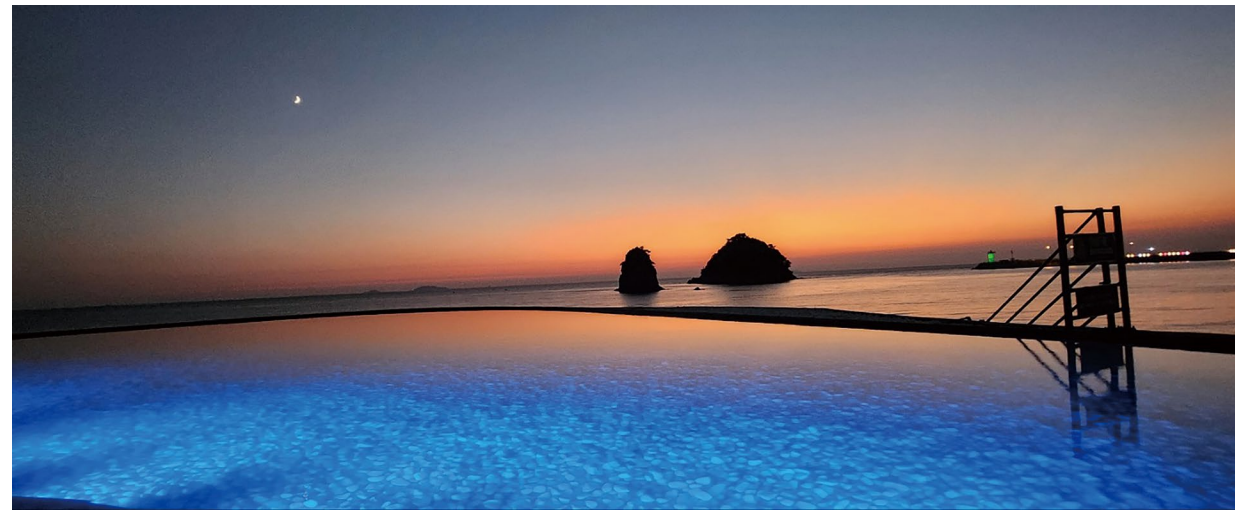


바람을 걸치고 구름 모자를 쓰고,
오늘 따라 모악산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눈부시다.



모악산의 초상_최택수

바다가 들려주는 수많은 언어를 다 받아적지 못한다.
못 적은 단어들이 내 마음에 빼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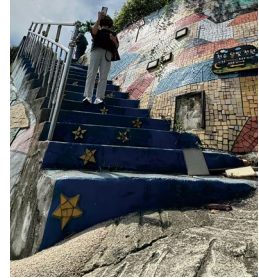


바다이야기_황미숙

아까부터 호시탐탐 노리더니
마지막 전리품인 가로수를 삼키려 호들갑이다.



태양에 항복하다_황미숙



시간을 지나 일상 속 숨은 이야기를 찾다

인문협업가 소영섭 | 장창영

발 행 일 2024년 10월

발 행 처 효자생활문화센터

발 행 인 선흥진

기획·편집 오민지 | 유현진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시 행  효자생활문화센터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2층

홈페이지 <http://www.jeonjuculture.or.kr/hyoja>

[비매품] * 이 책은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 지혜학교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 이 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이 책은 무단 전재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